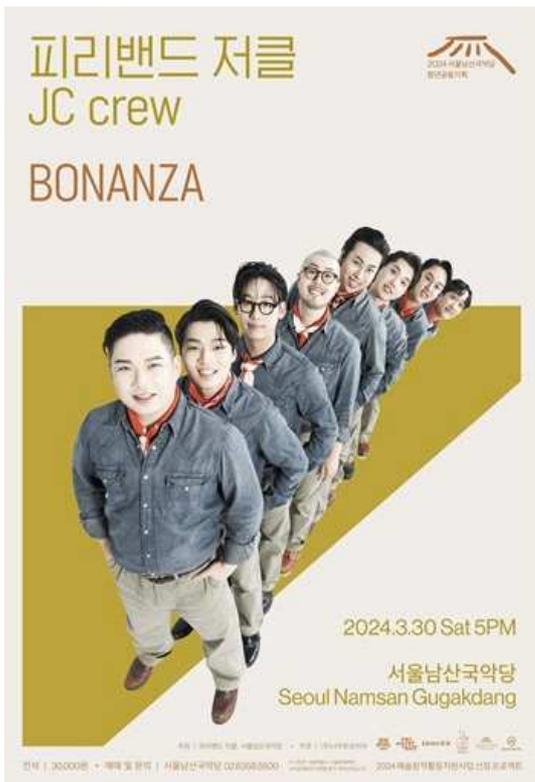
	발신	서울남산국악당 기획홍보팀	보도일시	2024.3.28
	공연·취재 문의	기획홍보팀 PD 서현재 T. 02-6358-5506 E. present@sntt.or.kr		
	사진·자료	웹하드( <a href="http://www.webhard.co.kr">www.webhard.co.kr</a> ) 내리기전용→보도자료→청년공동기획	ID: namsan2022	PW: 1234

서울남산국악당 청년공동기획  
**피리밴드 저클 <BONANZA>**

- 관악기의 장점을 극대화한 '한국형 관악밴드' 저클의 다양한 퍼포먼스
- 서울남산국악당 청년공동기획 첫 번째 시리즈



공연명	<BONANZA>
일시	2024.3.30(토) 17:00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출연진	저피리 남기문 피리, 태평소 오영빈 고평리, 피리 김유원 피리, 태평소 이승한 대피리 김병철 타악 이안 베이스 김진규 드럼 윤명식
관람료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소요시간	60분
예매	서울남산국악당, 인터파크티켓

## 01 공연 소개

---

2024년 서울남산국악당 청년공동기획 및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피리밴드 저클의 신작 'BONANZA'가 오는 3월 30일(토) 오후 5시 서울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른다.

피리밴드 저클은 관악기의 매력을 극대화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팀으로, 2022년 국악방송의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2023년 '롯데장학재단과 함께하는 청춘열전 출사표'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시작을 알렸다.

신작 'BONANZA'는 저클의 첫 레퍼토리 공연으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관객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관악기의 장점을 살린 강력한 사운드를 통해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민요, 동요, 구전 설화, 놀이 등 유년 시절 자연스럽게 접했던 '동네 한바퀴', '가위 바위보', '날 좀 보 SHOW' 등의 친숙한 소재를 익살스러운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한다.

저클의 남기문 대표는 "'BONANZA'는 노다지, 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 음악을 수많은 원석이 존재하는 광산이라고 비유한다면 광산 속 원석들을 발굴하여 보석으로 만든다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이 광산에서 어떤 원석을 발굴하여 보석으로 만들지 기대할 만하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공연일 것이다."라며 공연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서울남산국악당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공동기획 시리즈는 음악, 연희, 무용 등 다양한 청년예술가들과의 창작파트너십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예술의 무한한 확장을 시도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피리밴드 저클의 활기찬 무대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7팀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3만원으로 서울남산국악당과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남산국악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1. 피리밴드 저클 소개
  2. 작품 <BONANZA> 소개
  3. 서울남산국악당 청년공동기획 소개
- 끝.

## 02 피리밴드 저클 소개

---



사진제공 (주)나우판코리아

---

저피리 남기문 | 피리, 태평소 오영빈 | 고평리, 피리 김유원  
피리, 태평소 이승한 | 대피리 김병철 | 타악 이안  
베이스 김진규 | 드럼 윤명식

---

‘피리밴드 저클’은 한국 전통 관악기만으로 탄생하게 된 한국형 ‘관악밴드’이다. ‘저클’이라는 이름은 피리 연주자들의 ‘저학년 클래스’라는 줄임말로, 전통 음악을 처음 수학하던 시절의 호기심과 생생함을 간직하는 의미를 담았다. 일상 속의 음악적 영감을 찾아 다양한 음악 형태로 탈바꿈을 시도하며 관악기의 장점을 극대화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신개념 창작집단이다.

---

## 02 작품 소개

### ■ BONANZA

노다지. 신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음악을 수많은 원석이 존재하는 광산이라 비유한다면 광산 속 원석들을 발굴하여 보석으로 만든다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통민요부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가위바위보', '동네 한 바퀴' 동요까지 피리밴드 저클의 익살스러운 창작 방식을 통해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의 순간을 제공한다.

#### 1. 무령지 Go ㄱ

전통음악 대취타를 모티브로 만든 이 곡은 왕의 행진 때 행하던 음악으로 피리밴드 저클의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객석부터 행진하는 연출을 더하며 'BONANZA'의 시작을 알린다.

#### 2. 날 좀 보 SHOW

저클이 음악 활동을 시작한 이후 가장 처음 만들어진 곡으로 민요 '밀양 아리랑'을 모티브가 되었다. 흥겨운 리듬과 일관성 있게 짜인 멜로디가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곡이다.

#### 3. 동네 한 바퀴

동요 '동네 한 바퀴'를 모티브로 만든 곡이다. 동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익숙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그 루브한 리듬을 더해 낯선 듯 익숙한 음악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 4. GOT THE FUNK

Broken Brass의 'Got The Funk'를 커버한 곡이다. 브라스 밴드가 가지는 관악기 특유의 폭발적인 느낌을 향피리, 대피리, 저피리, 태평소로 연주함으로써 저클이 국악 시장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잘 나타내는 곡이다. 또한, 각 연주자의 솔로 파트로 연주자의 재량을 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하다.

#### 5. 닭고기

Jaco Passtorius 'Chicken'을 커버한 곡으로 잼 형식의 음악이다. 저클의 멤버들을 소개하고 공연의 후반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미난 연출과 입담으로 잠시 쉬어가며 관객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곡이다.

#### 6. 아피리카 !

'아피리카 !'는 '아프리카'와 '피리'를 합친 합성어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 음악의 흥겨움을 전달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토속 리듬에 피리의 음색이 더해져 만들어진 새로운 느낌의 음악을 즐겨보자!

#### 7. 풍구풍구

민요 '풍구타령'을 모티브로 제작된 곡으로 재미있는 리듬 섹션을 기반으로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인다. 기존의 저클이 가지는 익살스러운 느낌과 다르게 음악에 대한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 곡이다.

#### 8. 가위바위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놀이 중 하나인 '가위바위보'라는 놀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단순한 동작들로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가위바위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놀이이기 때문에 해외 관객까지 즐길 수 있는 글로벌한 곡이다 .

## 04 서울남산국악당 청년공동기획 소개

2024 서울남산국악당  
청년공동기획

피리밴드 저클  
JC crew  
BONANZA  
2024.3.30 Sat 5PM

음악제작소 WeMu  
위묘의 여섯거리  
Six Stories  
2024.4.27 Sat 5PM

노은실  
Noh Eunsil  
엠비언트 판-소리  
AMBIENT PAN-SORI  
2024.6.8 Sat 5PM

청년공동기획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예술가와 서울남산국악당의 창작파트너십을 통해 전통예술의 무한한 확장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 2024 상반기 청년공동기획

	일정	단체명	작품명
1	2024.3.30.(토) 17:00	피리밴드 저클	BONANZA
2	2024.4.27.(토) 17:00	음악제작소 WeMu	위묘의 여섯거리
3	2024.6.8.(토) 17:00	노은실	엠비언트 판-소리

※ 하반기 : 연희, 무용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 예정